믿음은 집중, 구원은 몰입

(이사야 56:1~12)

1.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2.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3.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4.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5.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6.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7.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8.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믿음은 집중, 구원은 몰입>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믿음은 집중, 구원은 몰입’

요즘 집중과 몰입이 자기계발서의 중요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장사를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인간관계에 대한 일이든지 집중과 몰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중과 몰입이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집중(集中)’이라는 단어는 글자 그대로 중심이 되는 한 가지 관심사에 의지적으로 나의 마음을 모으는 것입니다. 반면에 ‘몰입(沒入)’이라는 단어는 가라앉을 ‘몰(沒)’이라는 글자가 의미하는 대로 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은 ‘죽거나 끝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몰입

은 내가 의지적으로 마음을 한 곳에 모아서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사로잡혀 있고 빠져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몰입을 영어로는 flow로 '물이 흐르다'라는 뜻입니다. 몰입이론의 창시자인 헝가리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에 의하면 몰입된 상태는 무언가에 흠뻑 빠진 상태라고 합니다. 즉 마음이 물 흐르는 것처럼 편안한 느낌이라든지 혹은 하늘을 나는 자유로운 느낌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몰입 상태에서는 몇 시간이 몇 분처럼 느껴지는 시간 개념의 왜곡현상까지 일어나고, 몰입된 대상에 일체감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연애가 절정일 때에는 다른 이성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푹 빠집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3년 정도가 지나면 의지를 가지고 배우자에게 집중을 해야 합니다.
산악인 엄홍길 씨가 안나푸르나에 도전할 때에 4번을 실패하고 5번째에 성공했습니다. 산악인으로써의 등산에 대한 소회를 밝힐 때에 산에 가기까지는 집중해야한다고 합니다. 의지적으로 모든 관심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산에 오르기 시작하면 산 아래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고 오직 등산 자체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집중에서 몰입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몰입은 즐거운 것입니다. 물이 흐르는 것처럼 편안한 느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심리적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3500년 전에 모세도 집중과 몰입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신명기 6장 4~5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유일하다'라는 말은 집중할 때의 중(中)자를 말합니다. 오직 한 가지 중심이라는 의미입니다. 유일한 중심이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 완전히 몰입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십계명의 첫 계명에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모세가 전한 율법과 계명의 핵심은 집중과 몰입입니다.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시키면 몰입하게 되어 모든 율법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지켜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써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했지만 율법은 거울 같아서 나의 행위가 율법에 어긋나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기에 또한 몰입되지 못하고 있음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메시아 예언의 맥락이 유지되는 가운데 내용이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2절의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메시아 예언과 연결시키면 '복이 있는 사람'은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혜택을 누리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어서 십자가 복음이 주는 은총을 누림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손을 금하여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서로서로 상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안식일을 지키고 손을 금하여 악을 행하지 않는 행위가 요청되는 것 같습니다.
십계명에서 4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고 5계명부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 1~4계명은 집중의 단계이고 5~10계명은 몰입의 단계입니다. 즉 2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메시아를 믿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같은 것으로 집중의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식을 지킬 때에 5~10계명이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몰입의 상태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생각하는 안식일의 준수는 하나님에 대해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것과 같은 의미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안식일의 의미를 성취하는 것이며, 거꾸로 안식일을 준수할 수 없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기에 구약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을 구약을 통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가 충족되고 있는지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모세가 처음으로 안식일 이야기를 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10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의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당위성이 11절에 나타납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지켜야 하는 안식일이 하나님의 창조 과정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 사람 아담은 육일 동안의 창조과정에서 맨 마지막에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사람이 처음 만나게 되는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아직 하와가 창조되지 않았기에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첫 번째 관계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때는 아담이 몸으로 아무 일도 시작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처음 눈을 떠서 의식을 가지게 된 아담이 첫 번째로 보게 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유일한 관심의 대상으로 가지게 되

었던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마주했을 때에 아직 어떤 다른 대상도 알지 못하는 상태였고, 어떤 다른 일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태초에 안식일을 거론하시면서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이 최초의 안식일에 하나님께 가졌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가 쉬는 것이 아니라 최초의 상태로 돌아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해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기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하던 일들을 중지하는 것입니다. 즉 첫 사람 아담이 첫 번째 대상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던 마음 상태로의 회귀가 안식일 준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대상에게도 마음이 분산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만 집중(集中)하는 것입니다. 모을 集에 가운데 中입니다. 중심이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모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육체가 쉬는 개념이 아닙니다. 아담이 처음 눈을 떴을 때를 생각해보면 어떤 일을 해본 적이 없기에 행위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즉 창조 때의 아담처럼 내가 가진 생각이나 이제까지 해온 일들에 대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몸은 쉬고 있지만 머릿속이 여전히 세상에서 해오던 일들로 복잡해져있다면 안식이 아닙니다. 안식은 곧 이 세상 삶에 대한 죽음입니다. 그 동안 몸을 움직이고 해왔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완전히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식일의 준수가 의미하는 대로 아담처럼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상태가 되면 내가 관여해야만 하는 일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아담의 생애에 일어날 모든 일들의 계획과 실행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아담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선악과의 존재 때문이었습니다. 아담이 스스로 판단하지 않았기에 판단의 주체는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책임질 주체가 아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허락하신 주체성은 자발적으로 판단을 멈춤으로써 하나님의 판단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다른 어떤 일에도 마음을 분산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체로 해오던 세상의 일에 대해서 죽는 것은 그 모든 일에 대한 주체성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재시작이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컴퓨터가 시작하는 것을 부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것을 재부팅한다고 합니다. 내가 일을 잘했든 못했든 어떤 상태이든지 안식일의 의미대로 마음을 끄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동안 내 일로 생각해왔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로 되돌리는 삶의 재부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자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곧 안식일의 의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칠일째 지켜져야 했고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날마다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몇 번이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지 못하고 세상에 끌려가는 것을 볼 때마다 이 죽음을 반복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죽는 순간에 그 일은 하나님의 일로 되돌려질 것입니다. 이것을 삶에서 계속 반복해나가는 것입니다.

본문이 특이한 점은 안식일의 의미를 더욱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는 내용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방인과 고자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사실 이들은 일찍이 신명기 23장에서도 특별히 강조되었던 하나님의 총회에 참여할 수 없는 두 부류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의 반열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암몬과 모압 같은 이방인들과 신체에 결함이 있는 자들은 성전에 들어와 예배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이 모든 규정이 파해지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기도 전에 이미 이사야가 모세의 규정을 파한 것입니다. 메시아 시대가 되면 이들 또한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몰입하게 되면 나머지 계명들은 물 흐르듯 지켜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이방인도 고자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식일의 의미는 최초의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의식을 활성화시키고 주도적으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육체로 맺은 관계도 없고 육체로 한 일도 없었던 것입니다. 아내도 없었으며 부모나 자녀도 없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영(바람, 루아크)이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이방인으로 태어났을지라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일에 대해서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 안식일의 의미를 지키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는 결국 몸의 차이입니다. 신체에 결함이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도 결국 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를 가진 모든 인간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 안식일의 의미를 되찾고 아담처럼 되어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정리해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나의 육체와 육체로 인해 생겨난 모든 관계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그 모든 관계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일로 되돌리고 내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빠져버리는 몰입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기쁨과 만족이 생겨납니다. 이러한 기쁨의 상태에서는 이제 내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서 만족을 찾으려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십자가에서 배우자에 대한 마음을 죽이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음에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만족이 생기고 하나님께 몰입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배우자를 향해서 나오는 말과 행동에는 하나님의 흐름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의 흐름,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하나님의 계획의 흐름이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께 몰입해있는 동안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십자가 생활화를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습니다. 이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은 십자가를 통해 안식일의 의미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주체성을 갖지 않았던 아담이 알몸으로 하나님만을 상대하고 있었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픈 몸을 끌어안고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만 생각한다면, 걱정과 근심은 커져갈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까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지 말고 우선 안식일의 의미를 십자가로 성취하는 것입니다.

신체에 결함이 있는 고자가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리라는 예언처럼 십자가에서 암에 걸린 몸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동안 하나님께 몰입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가는 길을 내셨습니다. 십자가는 집중의 장소이며 주님의 부활과 승천은 우리를 하나님께 몰입하게 하는 길입니다. 일단 하나님께 몰입하여 마음이 기쁨과 만족을 느끼게 되면 암에 걸린 몸은 내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암에 걸린 나의 모습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진 기쁜 상태가 진정한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상태가 나의 참 모습입니다.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몰입한 상태가 나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암에 걸린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몰입한 나의 모습이야말로 참 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암에 걸린 몸을 사명으로 내게 맡기셨을 뿐입니다. 사명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암에 대해서 응답하면 될 뿐입니다.

사업이 엉망진창이 되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있기 때문에 사업은 나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안식일의 의미를 십자가로 성취하여 최초의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몸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상태로 돌아갈 때에 사업은 하나님의 일로 되돌려집니다. 내가 십자가를 통해 몸에 대해 죽고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내 몸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안식일의 의미를 성취하여 아담의 첫날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십자가를 지속적으로 바라볼수록 하나님에 대한 집중도가 커지고 몰입됨이 깊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완전히 빠진 상태가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집중과 몰입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안식일의 의미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의미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는 이유는 바로 안식일의 의미를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최초의 아담의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집중하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히 연합하여 몰입되기 위해서입니다. 이 기쁨과 만족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나는 하나님 계획에 참여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로 집중하고 하나님께 몰입되어서 '앗~싸'라고 외치고 싶은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이 좋은 집중과 몰입의 복음을 오늘도 하루 종일 써먹으면서 '앗~싸'라고 외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